

‘연구한다’ 욕심 버릴때 지극한 세계 열려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개원한 강우방 교수



“아름다운 나의 신앙”이라는 미술사학계의 거장 강우방 교수.

밤마다 석굴암에 올라 본존불과 독대(獨對) 하던 한 미술사학자에게 의문이 들었다. ‘석굴암의 건축이 치밀한 기하학적 작도에 의해 설계됐다면, 본존불의 크기 또한 어디엔가 근거해 결정된 것이 아닐까.’ 그때부터 그는 불상 크기의 근거를 찾아 헤맸고, 현장의 <대당서역기>에서 뜻밖의 기록을 마주하게 된다. 문헌에서는 석가모니가 정각을 이룬 보드가야 대각사의 불상 크기를 꼭 그와 같이 묘사하고 있었다. 그랬다. 신라인들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이룬 그 순간을 석굴암으로써 이 땅에 재현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작은 불상을 쓰다듬으면서 파닥이는 새를 손에 쥔 듯 깨달음의 기운에 요동치기도 했다. 작품의 생명력은 그의 심장과 만나 ‘영원’의 빛을 냈고 그때부터 ‘추체험’은 시작됐다. 예술 작품 속에 함축된 내밀(內密)의 세계를 밝혀내는 희심의 순간은 그 무엇보다 값졌다. 그러한 행동에 반드시 칼날을 세운 연구가 뒤따를 필요는 없었다. 그는 10여 년의 밤을 한결 같이 석굴암 본존불 앞에서 정좌하면서 석굴암에 관한 그 어떤 논문에든 관심이 없었다. 예배의 대상이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한번 스치기만 해도 모든 번

신라인 불심으로 돌아가 작품 앞 글쓰기 30년 석굴암 본존불 크기 ‘대당서역기’ 서 근거찾아 ‘체험의 희열’ 공유하기 위해 대중강좌 계획

석굴암이 남긴 숙제를 손끝의 온기와 절대미(美)에 대한 목마름으로 해결해간 미술사학자 강우방(이화여대 미술사학과·65) 교수를 만났다. 35년 전, 남들이 미국으로 영국으로 그럴싸한 유학의 길에 오를 때 스케치북과 4B 연필을 들고 휴먼지 이는 경주박물관으로 나향했던 사람. 그러나 자신에게 내려진 ‘지금-여기’를 총총히 가꿔 ‘체험의 미술사학’ 지평을 열었고, 지금은 한국미술사 안에서 ‘특별한 한국미술사’를 쓰고 있는 사람. 전공인 ‘불상’은 물론 불교예술 전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던 그에겐 어떤 힘이 있었던 것일까. “작품을 손으로 만지고 쓰다듬는 과정을 거쳐 그 당시 시대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석공의 가슴과 하나가 되고, 그 석공이 몸담았던 시대의 철학과 사상에 머리를 맡겼지요. 그리고는 시대를 거스르는 체험, ‘추체험(追體驗)’에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작품 주변을 맴돌며 그 작품이 형성하는 자장(磁場)을 가능했죠.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언어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때 노래가 나오고 그림이 그려진다. 강 교수는 예술로 승화된 ‘지극한 세계’의 즐거움에 매일 같이 취했다. 태양이 탑을 훑고 지나가는 하루의 순간순간을 기다려 시시각각 변화하는 탑의 문양을 살폈으며, 그러다 예뻐질수록 타종되는 날이면 그 원음(圓音)의 종소리에 때때로 제 몸 전체가 종이 되어 울렸다. 10cm남짓한

뇌가 사라질 듯한’ 대불의 두툼한 손을 마음껏 쓰다듬다가는, 대불 뒤에서 갑자기 출몰하는 십일면관음보살의 신비스러운 자태를 하얗게 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가 본격적으로 석굴암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도 훗날 하버드 대학 미술사학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부터다. 그가 30년 간 매일같이 작품 앞에서 글씨를 이어온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미술사학이란 조형언어로 만들어진 미술품을 ‘해독’을 거쳐 문자언어로 옮기는 작업이다. 그는 작품과 함께 호흡하는 가운데 체험한 감동을 문자로써 재현해 보이고 싶었고, 모든 연구 논문에 그 과정을 오롯이 녹였다.

건조한 논문에 익숙한 학계에서는 낯선 ‘에세이식 논문’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지극한 아름다움과 그 뒤에 숨은 진리 앞에서 거침없는 감탄을 쏟아냈다. 무모한 불사(佛事)와 위작(僞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갈을 퍼부어 별 수 없이 논쟁의 핵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30년간 예술과 함께 호흡해온 그의 피부를 믿었다. 위대한 작품 앞에서는 몸으로든 언어로든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었다. 작품 앞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신(神) 앞에서 춤추는 것과 같았다. 그 감흥들은 그의 논문 곳곳에 응화(應化)처럼 자리 잡았다.

그런 그가 4년 전부터 대학 강단에 서서 학생들과 연구의 열정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향(一響)’이란 호를 딴 한국미

◇ 강우방 교수는?



1941년 중국 만주 안동에서 출생했다. 1967년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했으나 화가가 되기로 결심해 골방에서 네 해 동안 그림과 붓글씨를 매일 그리고 썼다. 그러나 뭔가 성취했다고 생각하면 다른 일에 도전하는 것이 습성이었던 그는 물갈과 붓을 던지고 경주로 떠났다. 이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학예사로 지내면서 추체험의 실천적인 연구에 뛰어들었다. 그는 석굴암 본존불 크기에 얽힌 비밀을 밝혀낸 이래, ‘귀면와’라는 이름으로 기와에 새겨진 귀신의 얼굴이 ‘용의 얼굴’임을 주장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막연히 ‘구름 무늬’라 불렀던 문양은 우주에 총명한 ‘영기’임을 소상히 밝혀 이목을 끌기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 미술과 학예사·학예연구관·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국립경주박물관 관장을 역임했다. 일본 교토국립박물관과 도쿄국립박물관에서 동양미술사를 연수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0년 가을 30여 년간 봉직하던 박물관을 퇴직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4년 9월에는 일향 한국미술사연구원을 개원했다.

술사연구원도 개원해 한국미술을 ‘총체적’으로 살피기 위한 대중강좌의 틀을 마련했다. 당대 최고의 미술과 성(聖)이 교차하는 종교예술을 추체험한 지 30년이 되던 어느 날,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란 보살의 실천이 그에게 화두처럼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위도는 예술품에 녹아든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대중들을 울바로 인도하는 인간상, 그것이 이 시대의 미술사학자가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이라고 강우방 교수는 말한다.

글=강신재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디지털 영상포교시대를 선도하는 불교TV

◎ 사찰, 기업 광고제작/불교행사 기획, 방송/
◎ 역외 및 국내시절성지순례/고승 다류멘터리 제작/
◎ 기타 방송프로그램 제작, 판매

불교TV사업국
전화 : (02)3270-3333
(02)3270-3366~9

Bt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 관악구 봉천8동 945-2
Tel: (02)3270-3300, FAX: (02)3270-3496
www.bfn.co.kr